

#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7호 [루게 제24510호] 주제 103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갈매기팀과 제비팀사이의 여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갈매기팀과 제비팀사이의 여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서홍찬동지, 김수길동지, 김동화동지, 조경철동지, 김영철동지, 리병철동지, 김명식동지, 장동운동지, 박태수동지, 윤정린동지, 한광상동지, 황병서동지, 리재일동지, 박태성동지, 김승연동지와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



감독을 보내시며 경기성적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우리 식의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나라의 체육을 더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전체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갈매기팀과 제비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보아주시는데 이어 또다시 두 팀사이의 여자축구경기를

성원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관망석에 나오시였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두 팀은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면 마해온 축구기술을 남김없이 발휘

관람자들은 집단주의정신과 강한 투지를 안고 훌륭한 경기장면을 펼치는 선수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열렬히 응원하였다. 경기에서는 갈매기팀이 제비팀을 2:0으로 이겼다.

관람자들은 우러러 선수들과 관람자들이 또다시 러져올린 《만세!》의 환호성으로 하여 경기장은 용암마냥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선수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체육강국으로 빛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 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일과 3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광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란봉악단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기대는 날로 커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광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알장에서 만들어가는 제1나팔수로서의 자랑스러운 면모와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중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이 소식을 올렸다. 중국의 《홍콩광일보》, 《글로벌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동북망, 웨남의 인터넷통신사들인 브이엔엑스프레스, 전자, 미국신문 《워싱턴 타임스》, 메히코의 노퍼메스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연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 격려해주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로동조선문보》,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4.25문화회관에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민주공화국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

회,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며 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경주장병원과 육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하신 데 대하여 전하였다.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남김없이 과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을 향하신 거대한 공적으로 하여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요구대로 혁명적 건설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을 사회주의로로 튼튼히 다지시였다. 그는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참다운 국제주의 혁명가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기르키즈스탄 《기르키즈 열》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제사상연구소소 책임자 아. 우우즈비예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참다운

##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이 래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으로 회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따위키스만, 기르키즈스탄, 이딸리아에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을 비롯하여 사들,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따위키스만공산당 위원장 세. 샤브돌로브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을 향하신 거대한 공적으로 하여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요구대로 혁명적 건설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을 사회주의로로 튼튼히 다지시였다. 그는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참다운 국제주의 혁명가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기르키즈스탄 《기르키즈 열》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제사상연구소소 책임자 아. 우우즈비예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건설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쉬지 않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인민들을 만나시며 생활현안을 일일이 알아보시였으며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그대로 구현하시어 조선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로 전변시키고계신다. 이딸리아공산당의청년전선 전국조직자 알베르토 무스텔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것은 선군의 기치높이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왔기때문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명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군사적위협과 도전을 물리치면서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를 눈에 든 가치처럼 여기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조선에 대한 적대시책들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위업을 지지하는 반대성운동을 보다 강화해나갈것이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따위키스만, 말레이시아에서는 강연회가, 에티오피아에서는 좌담회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따위키스만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꾸르본존 미르조예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주체의 태양이시다. 그이께서 불멸의 주제사상을 창시하시어 지난날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여온 인민대중이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하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또한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많은 고전적작품을 발표

하시어 반제자주위업에 떨쳐나선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빛승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말레이시아 톰보 엔터프라이즈회사 사장 청칭지는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조선인민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명도자는 한 나라의 수령이시기 전에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이이시였다. 위인들의 한평생은 열렬한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빛내여오신 애국자의 한평생이였으며 강철의 의지와 담력을 지니시고 혁명의 한만리길을 영웅적사시리 수놓아오신 걸출한 혁명가의 한평생이였다. 하기에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명도자를 주체의 태양,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서모시고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명도자의 업적은 오늘 그분들의 조국판, 인민판, 혁명판을 그대로 체현하고계시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에티오피아 물공사설계 및 감독기업소 건설관리부장을 비롯한 발전자들은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경제발전에서 사심없는 원조를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본사기자

## 래양절 경축준비위원회 로씨야에서 결성

래양절 경축준비위원회가 3월 26일 로씨야 나흐트카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인

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흐트카시위원회 제1비서 젤레노브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경제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하자

뜻깊은 4월이다. 어버이수령년에 대한 헌정은 그리 움을 안고 태양광 산의 일군들과 광 부들이 중산의 동음을 더욱 힘 있게 울려가고있다.

일찍이 여기 있는 돌산은 돈산 이고 금산이라고 하지만 마그네사 이트생선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상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 온 어버이수령년이 뜨겁게 아로 새겨져있는 력사의 땅에 중산열 풍이 뜨겁게 휘날리고있다.

백금산, 그 이름과 더불어 태양광은 또 얼마나 천지개벽하였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체굴의 대혁명, 현대화가 실현 되어 광석생산을 더 높은 수준에 서 다그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현대적인 광석가공기 지도 보란듯이 일떠섰다.

어 버 이 수 령 님 과 위 대 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전진의 기상을 펼쳐놓는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오늘의 대고조전군에서도 사대의 기수가 되어 혁신의 불바람을 세게 일으키고있다.

백금산, 너를 빛내이리!  
이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영광의 땅을 높은 중산성으로 빛내이려는 광산일군들과 광부들의 심장속에서 터져나오는 하

## 태양광 산 일군들과 광부들의 투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탄광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등요하지 않고 참관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 준 혁명업무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해마다 말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온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올해 1.4분기계획도 빛나게 수행하였다. 남보다 조건이 좋아서 아니었다.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광산의 로동계급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말겨진 생생계획을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달려오는 이들이었다. 하기에 광산의 체굴장들과 소성로현장마다에서는 하루, 한시간이 그대로 전신간으로 흘렀다.

일군들의 위치는 언제나 돌풍은 생생현장이었다. 막장에서 광부들과 일도 함께 하고 전진 한 토의도 벌리면서 중산의 지

비를 찾아나갔다. 일군들이 있는 곳이 체굴장이든, 선광장이든, 소성로현장이든 그곳이 그대로 사무실로 되었다.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들과 연료를 사전에 충분히 마련해놓기 위하여 편만단위와 철도역들을 쉬임없이 오가며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는 일군들의 역할은 그대로 일터마다에서 중산실적으로 이어졌다.

체굴장마다에서 교대당 두발과, 지어 세발까지 뛰어들어 의지로 광물중산의 돌파구를 열어 나갔다. 이들속에는 광산에 뿌리를 내린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광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광물중산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백금산의 바통을 자기들이 넘겨받았다는 자각을 안고 착암기술과 발파방법을 꾸준히 익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맡은 일을 막힘없이 해왔다. 체굴장마다에서 이런 격전의 시간이 흐르고있을 때 돈산 마그네사분공장의 소성로에서도 시간당 출출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교대당 계획보다 1t 더!  
이들이 내세운 중산목표는 곧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끝

파적으로 뚫었으나 발파하기가 힘들었다. 도화선에 불을 달기 어려웠던것이다. 이때에도 소대원들은 집체적인 지혜를 합쳐 물기를 극복하고 발파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끝내 찾아내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날계획을 기어이 완수하고 다음교대를 위해 많은 량의 광석도 땀겨우 놓았다.

금산광의 광부들만이 아니었다. 4.5갱, 청년갱, 6월5일갱의 광부들도 이런 결사의 의지로 광물중산의 돌파구를 열어 나갔다. 이들속에는 광산에 뿌리를 내린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광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광물중산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백금산의 바통을 자기들이 넘겨받았다는 자각을 안고 착암기술과 발파방법을 꾸준히 익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맡은 일을 막힘없이 해왔다. 체굴장마다에서 이런 격전의 시간이 흐르고있을 때 돈산 마그네사분공장의 소성로에서도 시간당 출출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교대당 계획보다 1t 더!  
이들이 내세운 중산목표는 곧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끝

에서 뚜렷한 위훈을 새겨가려는 불타는 지향의 발전, 애국심의 높이였다. 소성작업반의 책임성을 지니고 화실판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전제없는 기적적 창조하였다. 한교대에서 최고 10회를 요출하였던것이다.

일을 해도, 사색을 해도 중산을 위해 애를 기울이고 중산은 가슴에 조국을 안고 사는 주인된 자각이 이렇듯 위훈을 창조할수 있게 한것이다.

영광의 일터를 중산성으로 빛내이려는 신념과 의지가 이들의 가슴마다에 들끓지 않는 억센 기동으로 자리잡고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조국의 전진속도에 태양광산은 보무당당히 보폭을 함께 하며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대형체굴장마다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동음, 출하장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광석더미, 소성로마다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편속 쏟아져내리는 경소마그네사와 크링가는 이들의 위훈을 전하고있다.

자기의 일터를 높은 중산성으로 빛내어가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어 우리 조국은 약동하고 강조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진군은 거세한것이다.

본사기자 리혁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발전소들을 더 잘 정비보강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발전기들의 효율을 끊임없이 높이고 노력 하여야 합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새로운 석탄연소첨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지금 이곳 발전소에 도입되고있는 연소첨가제는 합성납도파라기술위원회 위원장 강일동무가 개발한 보통온도에서 연소첨가제생산기술을 확보한것으로 공업연구소에서의 대량도입이 가능하여 화력발전부분의 큰 편속을 끌고있다. 특히 다른 연소첨가제들과는 달리 그 제작에서 소성과 급동, 초기분쇄와 같은 복잡한 과학기술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가가 매우 낮다. 뿐만아니라 세멘트생산지들에서 나오는 막대한 량의 폐기물과 우리 나라에 풍부 한 자원을 원료로 리용함으로써

그 생산량에서 제한이 없고 어디서나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수 있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주민연료부문전시회 및 과학기술발표회에서 경제적으로 실리가 큰것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냉각과 전력공급에서는 연료보조조건에 맞게 보이더라도 연소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한 힘을 넣으면서 여러 화력발전소들에서 새로운 석탄연소첨가제를 써서 일어난 받아들여도 경제조직사업을 방편로 있게 짜고들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중산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현행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면서 연소첨가제 도입에 드는 투자를 가하고있다. 기상장 최순덕동무와 기술발전과 최인혁동무는 발전소의 특성에 맞게 연소첨가제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꾸리며 해당하는 기술적지표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기술과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새로운 연소첨가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보일러의 운영상태를 실시간 세밀히 분석종합하고있다. 4.15기술혁신절대대장 최희영동무와 발전소에 과전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연소첨가제에 필요한 성분들을 효과적

으로 추출해내며 공업적규모에서의 리상적인 혼합비율을 찾기 위해 애글라를 애쓰고있다.

심상철동무를 비롯한 열생산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2,3호보일러에 새로운 연소첨가제를 대량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이고있다. 화력직장의 기능공들은 설비리용을 기동성있게 하면서 교반과 분사 등을 기술공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다.

이곳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벌써 여러차례의 충분한 도입시험을 통해 새로운 석탄연소첨가제를 받아들일면 저지 않은 량의 석탄과 증류를 절약할 수도 중진보다 연소효율을 1% 이상 높일수 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하게 되었다. 이들이 초보적으로 분석종합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화력발전소들에 이 연소첨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중산 예비만 해도 대단하다고 한다.

지금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올해전년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며 새로운 석탄연소첨가제를 비롯한 가치 있는 과학기술연구과업을 적극 받아들이며서 일터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게 일으켜 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뜻깊은 4월이다. 어버이수령년에 대한 헌정은 그리 움을 안고 태양광 산의 일군들과 광 부들이 중산의 동음을 더욱 힘 있게 울려가고있다.

일찍이 여기 있는 돌산은 돈산 이고 금산이라고 하지만 마그네사 이트생선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상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 온 어버이수령년이 뜨겁게 아로 새겨져있는 력사의 땅에 중산열 풍이 뜨겁게 휘날리고있다.

백금산, 그 이름과 더불어 태양광은 또 얼마나 천지개벽하였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체굴의 대혁명, 현대화가 실현 되어 광석생산을 더 높은 수준에 서 다그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현대적인 광석가공기 지도 보란듯이 일떠섰다.

어 버 이 수 령 님 과 위 대 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전진의 기상을 펼쳐놓는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오늘의 대고조전군에서도 사대의 기수가 되어 혁신의 불바람을 세게 일으키고있다.

백금산, 너를 빛내이리!  
이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영광의 땅을 높은 중산성으로 빛내이려는 광산일군들과 광부들의 심장속에서 터져나오는 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탄광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등요하지 않고 참관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 준 혁명업무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해마다 말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온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올해 1.4분기계획도 빛나게 수행하였다. 남보다 조건이 좋아서 아니었다.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광산의 로동계급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말겨진 생생계획을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달려오는 이들이었다. 하기에 광산의 체굴장들과 소성로현장마다에서는 하루, 한시간이 그대로 전신간으로 흘렀다.

일군들의 위치는 언제나 돌풍은 생생현장이었다. 막장에서 광부들과 일도 함께 하고 전진 한 토의도 벌리면서 중산의 지

비를 찾아나갔다. 일군들이 있는 곳이 체굴장이든, 선광장이든, 소성로현장이든 그곳이 그대로 사무실로 되었다.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들과 연료를 사전에 충분히 마련해놓기 위하여 편만단위와 철도역들을 쉬임없이 오가며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는 일군들의 역할은 그대로 일터마다에서 중산실적으로 이어졌다.

체굴장마다에서 교대당 두발과, 지어 세발까지 뛰어들어 의지로 광물중산의 돌파구를 열어 나갔다. 이들속에는 광산에 뿌리를 내린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광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광물중산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백금산의 바통을 자기들이 넘겨받았다는 자각을 안고 착암기술과 발파방법을 꾸준히 익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맡은 일을 막힘없이 해왔다. 체굴장마다에서 이런 격전의 시간이 흐르고있을 때 돈산 마그네사분공장의 소성로에서도 시간당 출출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교대당 계획보다 1t 더!  
이들이 내세운 중산목표는 곧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끝

파적으로 뚫었으나 발파하기가 힘들었다. 도화선에 불을 달기 어려웠던것이다. 이때에도 소대원들은 집체적인 지혜를 합쳐 물기를 극복하고 발파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끝내 찾아내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날계획을 기어이 완수하고 다음교대를 위해 많은 량의 광석도 땀겨우 놓았다.

금산광의 광부들만이 아니었다. 4.5갱, 청년갱, 6월5일갱의 광부들도 이런 결사의 의지로 광물중산의 돌파구를 열어 나갔다. 이들속에는 광산에 뿌리를 내린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광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광물중산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백금산의 바통을 자기들이 넘겨받았다는 자각을 안고 착암기술과 발파방법을 꾸준히 익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맡은 일을 막힘없이 해왔다. 체굴장마다에서 이런 격전의 시간이 흐르고있을 때 돈산 마그네사분공장의 소성로에서도 시간당 출출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교대당 계획보다 1t 더!  
이들이 내세운 중산목표는 곧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끝

에서 뚜렷한 위훈을 새겨가려는 불타는 지향의 발전, 애국심의 높이였다. 소성작업반의 책임성을 지니고 화실판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전제없는 기적적 창조하였다. 한교대에서 최고 10회를 요출하였던것이다.

일을 해도, 사색을 해도 중산을 위해 애를 기울이고 중산은 가슴에 조국을 안고 사는 주인된 자각이 이렇듯 위훈을 창조할수 있게 한것이다.

영광의 일터를 중산성으로 빛내이려는 신념과 의지가 이들의 가슴마다에 들끓지 않는 억센 기동으로 자리잡고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조국의 전진속도에 태양광산은 보무당당히 보폭을 함께 하며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대형체굴장마다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동음, 출하장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광석더미, 소성로마다에서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편속 쏟아져내리는 경소마그네사와 크링가는 이들의 위훈을 전하고있다.

자기의 일터를 높은 중산성으로 빛내어가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어 우리 조국은 약동하고 강조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진군은 거세한것이다.

본사기자 리혁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발전소들을 더 잘 정비보강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발전기들의 효율을 끊임없이 높이고 노력 하여야 합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새로운 석탄연소첨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지금 이곳 발전소에 도입되고있는 연소첨가제는 합성납도파라기술위원회 위원장 강일동무가 개발한 보통온도에서 연소첨가제생산기술을 확보한것으로 공업연구소에서 의 대량도입이 가능하여 화력발전부분의 큰 편속을 끌고있다. 특히 다른 연소첨가제들과는 달리 그 제작에서 소성과 급동, 초기분쇄와 같은 복잡한 과학기술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가가 매우 낮다. 뿐만아니라 세멘트생산지들에서 나오는 막대한 량의 폐기물과 우리 나라에 풍부 한 자원을 원료로 리용함으로써

그 생산량에서 제한이 없고 어디서나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수 있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주민연료부문전시회 및 과학기술발표회에서 경제적으로 실리가 큰것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냉각과 전력공급에서는 연료보조조건에 맞게 보이더라도 연소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한 힘을 넣으면서 여러 화력발전소들에서 새로운 석탄연소첨가제를 써서 일어난 받아들여도 경제조직사업을 방편로 있게 짜고들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중산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현행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면서 연소첨가제 도입에 드는 투자를 가하고있다. 기상장 최순덕동무와 기술발전과 최인혁동무는 발전소의 특성에 맞게 연소첨가제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꾸리며 해당하는 기술적지표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기술과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새로운 연소첨가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보일러의 운영상태를 실시간 세밀히 분석종합하고있다. 4.15기술혁신절대대장 최희영동무와 발전소에 과전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연소첨가제에 필요한 성분들을 효과적

으로 추출해내며 공업적규모에서의 리상적인 혼합비율을 찾기 위해 애글라를 애쓰고있다.

심상철동무를 비롯한 열생산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2,3호보일러에 새로운 연소첨가제를 대량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이고있다. 화력직장의 기능공들은 설비리용을 기동성있게 하면서 교반과 분사 등을 기술공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다.

이곳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벌써 여러차례의 충분한 도입시험을 통해 새로운 석탄연소첨가제를 받아들일면 저지 않은 량의 석탄과 증류를 절약할 수도 중진보다 연소효율을 1% 이상 높일수 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하게 되었다. 이들이 초보적으로 분석종합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화력발전소들에 이 연소첨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중산 예비만 해도 대단하다고 한다.

지금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올해전년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며 새로운 석탄연소첨가제를 비롯한 가치 있는 과학기술연구과업을 적극 받아들이며서 일터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게 일으켜 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 기적을 안아온 격전의 5일간

나라의 석탄산을 떠받드는 역센 뿌리가 되어 수천척치하락장 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의 범부리를 새겨가고있는 탄전의 미더운 척후병들속에는 흑령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적을 낚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며 강성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갈 때의 위훈의 범부리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되풀하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결사의 각오와 의지안고 떨쳐나 기계차게 내달린 지난 어느날이었다.

이곳 일군들앞에는 올해 중요 전투목표의 하나로 내세운 로직갱에서의 새로운 압축기장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결속하여 탄 광적인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과업이 나서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명적투쟁을 비롯한 탄광의 일군들이 로직갱으로 나갔다.

강조금일군들과 탄부들이 모인 가운데 협의회가 열렸다. 압축기장을 새로 건설하는데서 중점적책 취를 대고 콩크

리트초치기를 하는 방법에 매달린다면 그것이 양생되는데 남도 큰 한방이 걸려야 하겠다. 그것은 굴진실적을 떨어뜨리는 걸림을 낳게 되고 나아가서 당앞에 결의다전대로 올해의 석탄중산목표를 수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이때 협의회에 참가하였던 강기장사장 리중민동무와 설비중대장 김의주동무의 머리속에는 탄광구내에서 보았던 폐기된 대형화물자동차의 차를 압축기장의 기초로 리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이 문제를 놓고 열기면 론쟁이 벌어졌다.

무게가 3t나 되고 길이가 7m인 덩치큰 차를 어떻게 갱안으로 끌어들이며 설사 옮겨 갔다고 해도 그것이 꽤 콩크리트기초를 대신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일부 사람들속에서 제기되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차들이동과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하는 속생각이 다분히 깔린 의견이었다. 이런 때 협의회장에 올린 탄광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참가자들의 정신을 번쩍 처리게 하였다.

오늘의 생산투쟁전은 곧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임의전이다. 무엇이든 불가능한 불가능을 론하기 전에 먼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관념과 편당이 중요하다. 결사관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색과 탐구의 출발점이며 창조와 비약의 원동력이다.

탄광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새로운 착상을 기술적으로 무리이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고 강조금일군들과 설비중대원들모두가 떨쳐나선 가운데 전투가 시작되었다.

전양기의 쇠바줄에 연결된 대차우에 차를 올려놓고 긴 갱구간을 극복하여야 하는 아슬아슬한 전투였다. 특히 강사금탄 사갱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은 누구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1m 또 1m...  
김의주동무의 지휘에 따라 차를 실은 대차가 한치한치 전진하였다. 설비중대원들이 대차의 앞뒤에서 차들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따라왔다. 만일 차들의 중심이 대차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로 하여 빛이 질 후파는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 드디어 40분만에 목적인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중

대원들의 웃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그러나 숨틀러 사이도 없이 압축기를 통틀로 옮겨 가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중대원들은 옮겨온 차를 막막한데 든든히 고정시키는 한편 압축기의 진동을 막기 위한 대책도 취하였다.

기적창조의 5일간, 격전의 낮과 밤은 이렇게 흘렀다. 이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에 의하여 중진같은 한달이나 걸리던 새로운 압축기장건설이 불과 5일 동안에 결속됨으로써 탄광에서는 석탄중산의 돌파구를 열어주고 많은 압축기배편에비도 내어내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띄지 않는 천길망속에서 탄을 캐는 탄부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도 이들이 바쳐가는 헌신의 땀방울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값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다는 모르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누가 보지 못할, 알아주지 못할 강성국가건설에 있는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지향전초병들의 충정의 마음,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류성국

## 햇소금생산에 더욱 박차를

연백제염소에서 1.4분기계획을 109.6% 완수한 기세를 높여 4월에 들어와서도 혁신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리고있다.

3대혁명붉은기 정제소공장과 3직장, 4직장, 5직장을 비롯하여 제염소의 모든 직종들이 맡겨진 1.4분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내달리고있다.

제염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높은 목표를 향해 비약의 불바람을 세게 일으키며 햇소금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리영민

출발지점을 대증속에서 정하고 집중포화, 편속포화, 명중포화로 대중의 정진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산지도 일군들은 대중의 정진력이 최대로 분출되는데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생산현장에서 제염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제염소로동계급은 위에서 보장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내

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가마와 마대, 비닐막을 비롯한 소금생산에 필요한 자재도 자체로 해결하면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있다.

특히 2직장에서는 직장장 림성일, 기술부원 최영일동무들이 전기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도 앞배수로의 원료물류기와 증발농축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생산공정개발기술지도와 짜고 들고있다.

직장에서는 지난 3월 15일

까지 1.4분기계획을 109.6% 완수한 기세를 높여 4월에 들어와서도 혁신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리고있다.

3대혁명붉은기 정제소공장과 3직장, 4직장, 5직장을 비롯하여 제염소의 모든 직종들이 맡겨진 1.4분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내달리고있다.

제염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높은 목표를 향해 비약의 불바람을 세게 일으키며 햇소금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리영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대변인성명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피회호전광들은 6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다음해에 사정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것이라느니, 그릴때 되면 북의 전체 지역을 타격할수 있게 될것이라느니 뉘나 하고 희롱적책 취해오고있다.

그러나 하면 피회군에 미사일사령부를 새로 창설한데 대해서도 공개하면서 그것이 《북의 전략군사령부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느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서 핵심적역할을 할것》이라느니 뉘나 하고 떠들어대고 있다.

우리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도발》이니, 그 무슨 《위협》이니 뉘나 하고 그처럼 고이대던 피회들이 언제 그랬는 가설적 탄도미사일개발에 열을 올리고 미사일사령부를 조직하는 놀음까지 벌리고있는것은 실로 가관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회페당이 탄도미사일개발을 벌리면서 공화국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내놓고 씨벌어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고 조선반도긴장완화를 바라는 내외역에 대한 함을 수 없는 도발이다.

우리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다중화된 각종 미사일들을 개발하여 보유하고있지만 언제 한번 동쪽을 겨냥하거나 남조선 전 지역을 타격하겠다고 위협이 없다.

우리의 강위력한 미사일무력은 미국의 침략책동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억제력으로서 그 주되는 목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위험을 불어넣는 미국과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

들이다.

우리가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면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때 대한 병리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내기 위한것이다.

특히 우리의 선군로선과 국방정책은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것으로서 우리 공화국뿐아니라 남조선까지도 포함한 전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삶의 터전을 지키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피회호전광들이 이번에 공화국 전 지역을 타격할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 하겠다고 내놓고 떠들고있는것은 그들의 미사일개발이 누구에게 추종한것이 고 누구를 반대하여 어떤 목적에 악용 될것인가 하는것을 더 설명할 여지없이 똑똑히 보여준다.

뒤에 돌아앉아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의 돌격대가 되어 동쪽을 겨냥한 미사일개발을 다그치면서 앞에서는 우리의 자위적인 미사일을 걸고드는 피회페당의 행태야말로 얼마나 뻔뻔스럽고 고역어울려 있는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최신전쟁책비들과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어 침략적인 《독수리》연습과 대규모공작전인 《쌍룡》훈련이 최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때 피회페당이 탄도미사일시험 발사를 감행하고 북의 전 지역을 타격할수 있게 되었다고 공공연히 나팔을 불어내고있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전쟁도발을 일삼는 주범

이 누구인가를 세계면전에서 더욱 날날이 고발해준다.

피회들의 탄도미사일개발을 적극 부추기고 지원해주고있는것은 다음이러니고다.

미국은 피회들을 침략전쟁책동의 돌격대로 효과적으로 씨되기 위해 탄도미사일개발을 은근히 부추기면서 사거리, 탄두중량 등에서 제한조치의 빗장을 벗겨주고 기술을 이전하는 등 각방으로 적극 도와주고있다.

미국과의 비호와 두둔밑에 반공화국미perialist들의 막에서 감행된 이번 피회들의 탄도미사일시험발사놀음으로 미국이 이중적과 위선적책체가 더욱 날날이 드러났다.

지금 미국과 피회페당은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까밝혀놓는 우리의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대담에 정통이 썰러 속이 썩게 되자 저들의 범죄적인 미사일개발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고 그 무슨 무인기소등을 벌리면서 주의를 면데로 돌아가게 해보려고 가소롭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투적인 모략소동이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 피회페당은 더이상 우리의 탄도미사일발사를 시비할수 없게 되었으며 유엔안보리사회도 별 말없이 거둬졌고,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단호히 맞바나갈것이다.

미국과 핵위협과 북침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한 자위적억제력이 량상에 올려놓아 온갖 흉포물도 뿜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누가 뭐라고 하는 미사일위협과 핵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갈것이며 그에 대해 누구도 왈가왈부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과학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최상, 최고의 존엄과 기치를, 최첨단무장장비로 튼튼히 담보하고있으며 그 어떤 세력도 선군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우리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 결단력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미국과의 핵미사일개발전에 철저히 준비하고있는 우리 혁명무력에 있어서 피회페당의 미사일개발이 한갓 장난로밖에 보이지 않지않지만 감히 우리를 걸고들고 극히 호전적인 도발적책동을 취하는데 대해 결코 가만히 보만고 있지 않을것이며 주변나라들도 그 사정권이 늘어나는데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피회들은 무모한 탄도미사일개발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선반도평화와 지역의 안정의 파괴자로 내외의 더 큰 무란을 받고 고립배격당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공화국북반부의 어느 지역이 미국이씨일어선 피회미사일인 한발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적분 거지를 무자비한 미사일세례로 불타당 질하여 흔적도 없게 쓸어버릴것이다.

우리는 빈말을 모르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도발적책동에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단호히 맞바나갈것이다.

피회호전광들은 저들이 헛된 미사일 집하여 흔적도 없게 쓸어버릴것이다.

우리는 빈말을 모르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도발적책동에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단호히 맞바나갈것이다.

미국과 핵위협과 북침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한 자위적억제력이 량상에 올려놓아 온갖 흉포물도 뿜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누가 뭐라고 하는 미사일위협과 핵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갈것이며 그에 대해 누구도 왈가왈부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과학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최상, 최고의 존엄과 기치를, 최첨단무장장비로 튼튼히 담보하고있으며 그 어떤 세력도 선군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우리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 결단력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미국과의 핵미사일개발전에 철저히 준비하고있는 우리 혁명무력에 있어서 피회페당의 미사일개발이 한갓 장난로밖에 보이지 않지않지만 감히 우리를 걸고들고 극히 호전적인 도발적책동을 취하는데 대해 결코 가만히 보만고 있지 않을것이며 주변나라들도 그 사정권이 늘어나는데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피회들은 무모한 탄도미사일개발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선반도평화와 지역의 안정의 파괴자로 내외의 더 큰 무란을 받고 고립배격당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공화국북반부의 어느 지역이 미국이씨일어선 피회미사일인 한발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적분 거지를 무자비한 미사일세례로 불타당 질하여 흔적도 없게 쓸어버릴것이다.

우리는 빈말을 모르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도발적책동에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단호히 맞바나갈것이다.

미국과 핵위협과 북침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한 자위적억제력이 량상에 올려놓아 온갖 흉포물도 뿜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누가 뭐라고 하는 미사일위협과 핵억제력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세멘트생산을 더 높이기 위하여 힘써 생산현장에 나서고있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3월의 계획보다 6200t의 세멘트를 중산하는 성과를 이룩한데 이어 4월에 들어와서도 생산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을 깊이 들어가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열을 넣고있다. 원로직장, 조합원로직장, 소성직장, 크링카수송직장, 세멘트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세멘트중산으로 당의 높은 뜻을 받들며 열중하여 일어난고 세멘트생산을 위한 협동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매일 걸진 파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 설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예견성있게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용감한 판심을 들리고있다. 원로, 자체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을

조직정지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특히 당선일군들은 선진전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편속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면서 생산현장 그 어디서나 새로운 기적과 혁신으로 부르는 경제성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세멘트생산설비의 만가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을 깊이 들어가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열을 넣고있다. 원로직장, 조합원로직장, 소성직장, 크링카수송직장, 세멘트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세멘트중산으로 당의 높은 뜻을 받들며 열중하여 일어난고 세멘트생산을 위한 협동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매일 걸진 파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 설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예견성있게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용감한 판심을 들리고있다. 원로, 자체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계에 일고시키고있다.

석회석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승리의 신심드들이 4월에 들어와서도 편속헌공, 편속출파를 들이대어 석회석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으며 공작기와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많은 량의 석회석을 제때에 실어나르고있다. 권관광산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세멘트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매일 높은 생산을 기록하고있다.

자체상상에서는 세멘트생산을 위한 부원로보장을 힘써 넣어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내화분공장에서 소성로보수에 필요한 내화벽돌생산을 다그쳐 매일 많은 량의 벽돌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더 높은 세멘트생산성과로 경제건설에 이바지할 열의를 단련히 차투해나가고있다.

특기기자 리혁철



화선영웅전지주추산시지전선철도장평역에서 일하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세멘트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힘써 생산현장에 나서고있다. (본사기자 김광희 취재)

# 모란봉악단을 맞이한 대흥단삼천리별에 환희와 걱정이 파도친다

## 대흥단군과 백암군 인민들 공연 관람, 대결 찬

모란봉악단이 삼천리군에서 공연에 이어 대흥단군에서 공연무대를 펼쳤다. 대흥단군과 백암군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에 의하여 계획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된 대흥단삼천리!

약동하는 삶과 투쟁의 희열이 한껏 차넘치는 력사의 땅 대흥단군은 물론 백암군의 인민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고있는 국보적인 예술단체인 모란봉악단의 공연이야기로 뜻을 피우며 잠들지 못하고있다.

오늘도 종지부 레일은 더욱 좋으리라는 승리의 신심을 더해 주며 환넉던 대흥단삼천리에

백두의 혁명열이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는 모란봉악단의 노래 폭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과 심장을 움직이는 예술은 세계를 변혁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모란봉악단이 온다는 소식은 삼천리에 온 대흥단군에 퍼져 사람들에게 흥분시켰다.

모란봉악단을 맞이하기 위해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은 모란봉악단공연의 관람열정을 높이기 위하여 대흥단군에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모란봉악단을 맞이하기 위해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의 일꾼들은 모란봉악단공연의 관람열정을 높이기 위하여 대흥단군에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엄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일꾼들부터 대흥단군문화회관에서 며칠밤을 새우면서 좌석배치와 온도보장 등 공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사업을 앞장서 다그쳐나갔다.

4월 6일 오후 대흥단군문화회관을 꽉 채운 관람자들모두가 커다란 흥분으로 설레이는 속에 모란봉악단의 첫날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의 첫 공연은 대흥단군의 인민들이, 두번째 공연은 백암군의 인민들이 관람하였다.

공연시작을 기다리며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사랑이 깃든 공연종목표를 펼쳐 들고 모란봉악단의 가수들과 연가들에게 대하여, 공연종목에 대하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대에 향일의 내대원들의 군복차림을 한 모란봉악단 예술인들이 나서자 관람석에서는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경쾌한 음악선율이 흐르는 속에 녀성독창 《희망찬 내의 조국아》를 울며 관람자들은 또 한번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어 끝없이 희망찬 내 조국의 미래를 더욱 확신하였다. 하나하나의 종목이 끝날 때마다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장내를 들끓어올랐다.

특히 녀성독창 《대흥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를 들는 대흥단군 인민들의 가슴속에는 류타는 격정과 환희의 새기가 설레었다. 무대배경에 대흥단군을 찾고 또 찾으며 굳이 나이갈 길을 완히 밝혀 주시길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지대로 영성들이 정중히 모셔가지 그들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계속하여 무대배경에 무연한 감자꽃바다가 펼쳐지고 날로 꽃피는 대흥단군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며 관람자들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대흥단군 인민들모두가 사랑하는 노래 《대흥단 삼천리》가 녀성 3중창으로 무대에서 울려 퍼질 때에는 누구나 박수를 치며 흥에 겨워 가수들과 호흡을 같이하였다.

백암군의 인민들도 훌륭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며 자기 고장을 대규모습으로 꾸려주실 시기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적시었고 하루빨리 백암땅을 대흥단군과 같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킬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공연의 마지막종목인 녀성중창 《인민은 일원단심》을 들으며 대흥단군과 백암군의 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옥이

력력히 어리둥절한 백두산지구에 이처럼 희한한 모란봉악단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충정으로 보답해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웠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한결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들끼리 흥분하여 이야기하며 흥분을 나타내었다. 흥분하여 더욱 솟구쳐올랐다. 여러해 전 우리 국수님께 찾아오셨던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공연은 끝났어도 사람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공연을 보았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또 보고싶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았지 모르겠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대흥단군 농사동맹작업반장 민기현은 흥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란봉악단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부터 어쩌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고싶어하는 대흥단군 사람

들의 심정을 그렇게도 속속들이 다 알고계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공연의 특종목들이 다 훌륭하였지만 특히 《대흥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걱정이 더욱 솟구쳐올랐다. 그래서 공연이 더욱 솟구쳐올랐다. 흥분하여 더욱 솟구쳐올랐다. 흥분하여 더욱 솟구쳐올랐다. 흥분하여 더욱 솟구쳐올랐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이야기로 뜻을 피우며 잠들지 못하고있다.

오늘도 종지부 레일은 더욱 좋으리라는 승리의 신심을 더해 주며 환넉던 대흥단삼천리에

좋아하는 명목들이었고 누리고 있는 보람찬 생활고대로였다. 공연을 보면서 흥분에 기이 감자대풍을 안아오는것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당면하여 지금 진행되고있는 밀, 보리과종을 제 날자에 무조건 끝내겠다.

백암군 세봉농장 박현희는 오늘 희한한 모란봉악단공연을 남편과 함께 관람하고나니 가슴가득 차오르는 긍지와 자부심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몇해전에 제대되어 고향인 함주군 동봉리에서 일하다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깊이 관심하시는 백암군에 자원전출하였다. 모란봉악단공연소식을 들으며 깊은 산골에도 햇빛처럼 따사롭게 비추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농장에서는 우리 제대군인부부가 누구나 보고싶어하는 모란봉악단공연을 먼저 관람하게 해주었다. 공연을 보면서 심장의 피가 펄펄 끓어올랐다. 우리 제대군인들은 어제의 병사들답게 혁명적근거심을 더 높이 발휘하여 백암땅을 대흥단군처럼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에 서겠다.

이렇듯 대흥단군에서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첫날공연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이 땅에서는 반드시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한 메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진리를 더욱 굳게 새겨주었다. 사람들의 마음과 찬란을 불태워오며 력사의 땅 대흥단군에서의 모란봉악단공연은 계속된다.



# 혁신의 불바람 세차게 일으킨 원군열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인민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진정한 동지적관계를 굳게 결합되고있으며 온 사회에 군인일치의 미풍이 차 넘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높이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건설에 펼쳐나가는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군인건설자들과는,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과는, 청년학생들이 건설성에 힘쓰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안에 일떠서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에 펼쳐나간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원호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교육위원회 책임일꾼은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안고 군인건설자들과 찾아가

우리 나라 교육자처럼 행복한 교육자들은 세상이 없다고 하면서 교육자살림집을 훌륭히 건설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고있다. 대학책임일꾼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대학에서 준비한 많은 원호물자들을 안고 건설자들의 생활을 위하여 군인건설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이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다.

정보기술교류소 소장 라성승, 정보공학연구소 소장 김혁, 부장장 리영수, 광명공학부 학부장 현현일, 실장 현철용, 반도체연구소 연구사 박광석, 전자공학부 학부장 최광룡, 금속공학부 강좌락 교수, 김원제 동무들도 군인건설자들에 뜨거운 마음과 정성을 바치였다.

공화국과학연구원 부원장 강일영, 물리공학연구소 소장 조일범, 실장 석명국 동무들과 고등교육

연구과 과장 리명철, 편희봉사사업소 지배인 강남동무들도 군인건설자들과 적극 원호하였다.

전기공학부 학생 윤중혁동무는 공부를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결의를 안고 건설자를 찾았으며 기계과학기술대학 학생 김홍승동무도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군인건설자들과 원호하였다.

이밖에도 모란봉구역별의 봉사사업소 로동자 최은정, 서성주 학생 59인민반에서 사는 립북화동무들도 교육자살림집건설에 펼쳐나간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정성을 바치였다.

군인대동열을 추동하는 원군미풍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건설장에서도 날로 더욱 꽃피고있다.

강애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설립예정과 광명정철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마련한 원호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어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완공하는데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위원회에서 준비한 원호물자를 안고 건설자를 찾아가 힘있는 화선선동과 위주약공연을 진행하여 전투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원호물자를 안고 건설자를 찾은 통라도지도국 부원 김홍진동무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건설장에서 제일 훌륭한 야영소로 꾸러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원산시직업집 지배인 최항동무도 여러차례 건설자를 찾아 뜨거운 정성을 바치였다.

이밖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윤주혁, 원산농업종합대학 학생 최승현동무들도 건설자를 찾아가 힘있게 도와주었다. 김원제 동무도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군인건설자들과 원호하였다.

원산시직업집 지배인 최항동무도 여러차례 건설자를 찾아 뜨거운 정성을 바치였다.

이밖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윤주혁, 원산농업종합대학 학생 최승현동무들도 건설자를 찾아가 힘있게 도와주었다. 김원제 동무도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군인건설자들과 원호하였다.

# 원아들의 웃음에 비낀 헌신의 모습

우리는 얼마전 남포시 온천초등학교 교양원이 보내온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한 원아를 위하여 왕복 2천리길을 달려며 뜨거운 정성을 쏟아부은 시인민위원회 국장 문호동무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맡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지난해 10월, 식료품과 겨울 난방용석탄을 실은 화물자동차가 학원마을에 들어왔다.

학원마을의 생활을 언제나 다스린 친부모임으로서 도와주어주시는 시인민위원회 국장 문호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이 찾아온 것이다.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원아들을 지켜보던 문호동무는 한전에 홀로 외롭게 앉아있는 한 원아를 보게 되었다. 어려서 입은 타박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김향희원아의 얼굴에는 눈물이 비껴있었다.

그날부터 문호동무의 눈앞에는 자주 학원어린이의 얼굴이 얼룩져갔다.

하루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다가도 그 애의 어두운 얼굴 표정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였다.

(원아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는가.)

여기에 생각이 미친 문호동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애의 다리를 고쳐주어 다리를 마음껏 활보하게 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사방에 수소문하면서 치료대책을 찾았다.

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그는 평양과 지방의 의료기관들과 편지를 가지고 원아의 다리를 치료할 대책을 토의하였다.

지난해 11월 중순 함흥으로 향한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에는 문호동무와 교양원 그리고 김향

희원아가 타고있었다. 어린 학회가 떨림을 할새라 자주 승용차를 세우기도 하고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친자식처럼 안고 다니며 살뜰히 돌봐주는 문호동무의 정성에 교양원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함흥에 도착한 문호동무는 여러 의료기관들을 찾아다니며 뜨겁게 호소도 하고 토론도 진지하게 벌였다.

함흥시안의 의료기관들과 함흥시에 근무하는 교양원원들과 함흥시와 로동자들도 그의 진정에 감동되어 적극 도와주었다.

드디어 학회어린이는 다리를 났고 뛰어나기게 되었다.

그날 그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한껏 어리둥절.

그렇게도 바리던 원아의 얼굴에 핀 웃음꽃, 원아를 꼭 품어안은 문호동무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후 문호동무는 새 로라스케트를 향희원아에게 안겨주어 기쁨을 더해주었다.

문호동무의 뜨거운 정성은 비단 한 원아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하면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있었다.

원아들의 웃음소리 높은 오늘, 옥이원전골에도 건물들끼를 스스로 말아 건축적순결기안안해 김향희동무와 함께 며칠밤을 지새우고 건설의 나날에는 또 건설자들과 함께 온몸을 따르며 적시며 아글라트 노력한 문호동무의 헌신의 모습이 비껴났다.

원아들이 추운 겨울에도 뜨뜻이 지내게 해주려고 담요도 세라를 깔아주어 한해, 학용품과 식기까지를 실어다주며 또 한해, 태양 빛처럼 리용한 다세대교육체제를 세워주기도 또 한해...

옥이원, 애육원, 초등학교원으로 그의 헌신은 이렇게 20년간 변함없이 이어졌다.

이렇듯 남포시 옥이원, 애육원, 초등학교원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꽃에는 남포시는 밀거머를 되고 무리가 되어 아글라트 환희를 구우어는 참된 애국가, 훌륭한 일꾼들의 뜨거운 헌정이 비껴났다.

특약기자 주 창 선

# 뜨거운 정 넘치는 우리 집

집! 조용히 불려만 보아도 가슴에는 따스함이 넘친다. 자어깊은 부모모를 다정한 형제들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사랑마다 한행로록 유년시절의 즐거움을 추억이 깃든 고향집을 잊지 못하는것이다. 하다면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고향집추억을 같이 간직하고 사는것은 단지 그때문이다.

동림군 읍 282인민반 립북남, 유명희부부가 사는 가정을 두고 이에 대답을 하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당파수령을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고 온 사회가 하나의 화폭을 대가정을 이루고있으며 사람들이 친열육교 같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어느날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던 립북남동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식들이 자고있는 아랫방에 낯모른 소녀가 누워있었던것이다. 안해가 소녀의 곁에 앉아 다정히 머리를 쓰다듬고있었다.

《누구요?》

의아한 기색으로 바라보는 남편을 믿을수없는 눈길로 바라보며 안해는 소녀를 데려오게 된 차츰치중을 이야기하였다.

친정집에 불일이 있어 갔던 유명희동무는 부모없는 한 소녀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다. 그는 쉽게 발길을 돌릴수 없었다. 그래서 소녀가 있는 곳으로 찾았다. 유명희동무는 소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엔 아

버지도 있고 오빠와 동생도 있다.》

안해의 말을 듣는 립북남동무는 가슴에 뜨거움이 느껴졌다. 이것은 단지 그때문이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의 귀에 익었던 말,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는 목소리였었던것이다.

립북남동무의 눈앞에는 흘러간 지난날들이 영화면처럼 밝혀졌다. 그것은 립북남동무가 3살 나던 해에 있는 일이었다. 아직은 인생의 첫 시작점이나 같은 그 나이에 립북남동무는 부모를 여읜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홀로 살아가는 그에게 동림군의 어느 한 가정에서 로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클직한 손으로 고사리같은 자기의 손을 감싸주며 그 시편을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자기가 살던 집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자 립북남은 불안한 눈길로 자꾸만 돌아보았다. 하지만 이전과 다름없는 따듯한 《우리 집》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립북남은 굳센정성을 몰았다. 부모의 손목을 잡고 탁아소와 유치원을 거쳐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 조직한 동산회를 가진 부남이가 색은 밤반찬이 제일이라고 추어주는 동무들앞에서 애국가 외쳤다.

한살, 두살 나이를 먹으며 립북남의 가슴속에는 우리 집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자리잡았다. 가엾이 부르던 하늘과 언제나 즐겁던 마음, 그것이 행복에 거

연구과 과장 리명철, 편희봉사사업소 지배인 강남동무들도 군인건설자들과 적극 원호하였다.

전기공학부 학생 윤중혁동무는 공부를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결의를 안고 건설자를 찾았으며 기계과학기술대학 학생 김홍승동무도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군인건설자들과 원호하였다.

이밖에도 모란봉구역별의 봉사사업소 로동자 최은정, 서성주 학생 59인민반에서 사는 립북화동무들도 교육자살림집건설에 펼쳐나간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정성을 바치였다.

군인대동열을 추동하는 원군미풍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건설장에서도 날로 더욱 꽃피고있다.

강애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설립예정과 광명정철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마련한 원호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어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완공하는데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위원회에서 준비한 원호물자를 안고 건설자를 찾아가 힘있는 화선선동과 위주약공연을 진행하여 전투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원호물자를 안고 건설자를 찾은 통라도지도국 부원 김홍진동무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건설장에서 제일 훌륭한 야영소로 꾸러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원산시직업집 지배인 최항동무도 여러차례 건설자를 찾아 뜨거운 정성을 바치였다.

이밖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윤주혁, 원산농업종합대학 학생 최승현동무들도 건설자를 찾아가 힘있게 도와주었다. 김원제 동무도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군인건설자들과 원호하였다.

원산시직업집 지배인 최항동무도 여러차례 건설자를 찾아 뜨거운 정성을 바치였다.

이밖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학생 윤주혁, 원산농업종합대학 학생 최승현동무들도 건설자를 찾아가 힘있게 도와주었다. 김원제 동무도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군인건설자들과 원호하였다.

# 함해남도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

자기의 무릎에 앉아 귀엽게 제물을 부리는 향이에게 도당책임일꾼은 소원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향이는 도당책임일꾼의 목을 꼭 그러고나 소스콘소속하였다.

《아버지와 엄마, 오빠, 동생과 함께 있는것이 참 좋습디다. 언니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디다. ...》

도당책임일꾼은 향이의 언니를 데려오기 위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었다. 군당일꾼들의 적극적인 방조에도 유명희동무는 향이의 언니가 있는 곳을 찾을수 있었다. 유명희동무는 선향을 품에 꼭 껴안고 말하였다.

《우리 집으로 가자. ...》

이렇게 되어 부남이, 유명희의 친딸이 된 립향이와 립선향은 그들가정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지난 3월 31일 함해남도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 11명이 수많은 교직원, 학생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서해의 섬마을학교로 출발하였다.

섬마을학교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당의 승호한 후대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가는 길에서 청춘의 값높은 의미를 빛내여갈 굳은 결기가 어려움없이

이번에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이 자진하여 외진 섬마을학교의 교단으로 진출한것은 우리 당의 승호한 후대사랑을 꽃피우려는 한결같은 뜻은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아름다운 인생관을 다시금 뜨겁게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혁명가들입니다.》

지난해 3월 서해의 섬마을교 교원으로 진출한 조국희동무, 교원대학의 졸업생들이 이곳 섬마을을 찾으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다가이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소식은 도안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가슴속을 한없이 격정적으로 감미하게 하였다.

함해남도의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당조직들에서는 학생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호한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반드시 경에서 희망의 나래를 한껏 펼쳐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교원혁명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울라하고 출발하였다.

섬마을학교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당의 승호한 후대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가는 길에서 청춘의 값높은 의미를 빛내여갈 굳은 결기가 어려움없이

이번에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이 자진하여 외진 섬마을학교의 교단으로 진출한것은 우리 당의 승호한 후대사랑을 꽃피우려는 한결같은 뜻은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아름다운 인생관을 다시금 뜨겁게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혁명가들입니다.》

지난해 3월 서해의 섬마을교 교원으로 진출한 조국희동무, 교원대학의 졸업생들이 이곳 섬마을을 찾으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다가이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소식은 도안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가슴속을 한없이 격정적으로 감미하게 하였다.

함해남도의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당조직들에서는 학생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호한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반드시 경에서 희망의 나래를 한껏 펼쳐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섬마을학교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당의 승호한 후대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가는 길에서 청춘의 값높은 의미를 빛내여갈 굳은 결기가 어려움없이

이번에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이 자진하여 외진 섬마을학교의 교단으로 진출한것은 우리 당의 승호한 후대사랑을 꽃피우려는 한결같은 뜻은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아름다운 인생관을 다시금 뜨겁게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혁명가들입니다.》

지난해 3월 서해의 섬마을교 교원으로 진출한 조국희동무, 교원대학의 졸업생들이 이곳 섬마을을 찾으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다가이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소식은 도안의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가슴속을 한없이 격정적으로 감미하게 하였다.

함해남도의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당조직들에서는 학생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호한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반드시 경에서 희망의 나래를 한껏 펼쳐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